

이땅은 본래부터 불국토 - 한국의 불교지도

산 강 마을 곳곳에 '법향' 가득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에 기여한 바는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특히 불교는 우리의 삶의 동지인 땅 이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불교에서 유래되었거나 관련된 땅이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를 들어 서울에는 두 곳의 신사동(新沙洞)이 있다. 은평구와 강남구에 신사동이 있어 자칫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

잘못 들으면 속내와 대비되는 말로 오해하기 쉬운 신

갈면(佛面)을 비롯 강화군의 불면(佛頂面), 괴산군의 불정면(佛頂面), 함평군의 손불면(孫佛面) 등 불당(佛堂·佛·리·재 등), 불암, 불정(佛井) 등이 들어간 이름이 산재해 있는데 불당골의 경우 조사된 바로는 마을이 전국에 69개처, 골짜기가 무려 3백64개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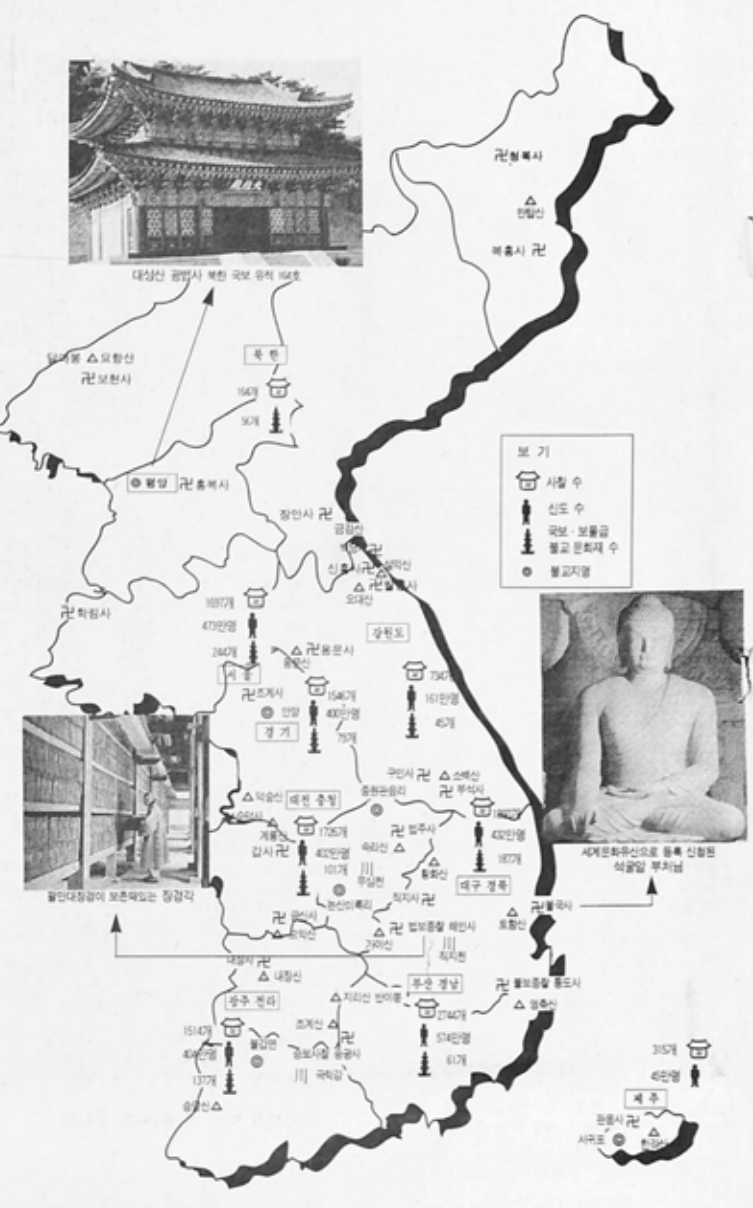
창원시에는 불모산동(佛母山洞)이 있는데 동쪽 진해시와의 경계에 불모산과 성주사(聖住寺)가 있다. 불모는 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부

면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열반에 든다'고 하였으므로 '열반산'이라고도 부른다.

안성군 이죽면 칠장사 아래에는 '극락마을'이 있고 광주직할시를 관유하고 있는 강은 '극락강'이다. 또 영광군 불강면에는 불강산에 불갑사가 있고 불강천이 흐르고 있으며 청주에는 무심천이 있다.

그리고 '마루'나 스님과 관련된 땅이름, 또는 탑이나 비석 등에서 유래된 지명들

불교가 우리 민족에 끼친 영향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수천년 역사동안 불교는 우리의 숨결과 핏줄에 녹아 들어 맑고 아름다운 심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한국인들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 민족의 삶의 동지인 이땅의 많은 곳이 불교에서 유래된 이름이며, 무의식중에 쓰는 많은 생활용어가 불교에서 나온 말들이다. 본지는 창간 기획특집으로 땅이름, 생활습관, 언어, 신도수와 사찰 그리고 문화재를 통해 이땅이 본래 불국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사찰

우리나라에는 1만2천3백60여 사찰이 있으며 이중 전통 사찰은 8백50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 소재 1백64개와 해외의 1백51개를 더하면 한국불교의 사찰수는 1만2천6백80여개로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면적을 생각할때 이같은 사찰의 수치, 특히 전통사찰의 수적 분포는 한국의 불교세를 짐작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들 사찰은 종

에게 한국에 대한 기억을 묻으면 대개는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각각등을 꼽는다고 한다.

서울의 몇몇 고궁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관광지 대부분이 불교 문화의 현장이다. 그들의 대답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불교문화를 보고 가서 한국을 보고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동맥이자 정맥이란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생활풍습, 언어는 물론이고 한국

사찰 총 1만2천여 곳 전국이 불교 박물관

단발로는 태고종이 2천5백41개 조계종이 1천6백94개 법화종이 1천5백62개등의 수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부산, 경남이 2천7백44개 대구, 경북지역이 1천8백60개, 대전, 충남북이 1천7백26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찰 이름으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관음사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음신앙이 얼마나 선호되고 보편화되었는가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성불사 보현사 등이 많은데 이것 역시 관음신앙의 선호도와 보편화를 보여주고 있다.

인의 사고방식 자체가 불교적이거나 불교의 정신이 배인 경우가 많다는 것도 현대화된 오늘날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는 불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점검해 볼 때 더욱 확신을 준다.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질 날이 없는 불교문화재는 국토 1백46점 보물 7백7점등 모두 8백53점이 된다. 이는 전체 문화재의 62% 차지하는 수치다. 여기에 사적, 민속자료, 중요무형문화재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 9백15점에 이른다. 시, 도, 군이 지정된 문화재를 포함하면 아예 한반도 전체가

문화재

한국을 다녀간 외국 관광객들

'佛' '寺' '절' 자 든 땅이름 전국에

사동은 은평구에는 '신사동(新沙洞)'으로 '새절 마을'이란 뜻이며 강남구에는 '신사동(新沙洞)'으로 모래와 관련된 지명이다.

이처럼 사찰이 있거나 있었던 곳에는 절곡·사동(寺洞)·사곡(寺谷)·사리(寺里) 등의 마을이름이 있다. '사동'은 원래 절골이란 뜻이다. 흥천 화천면, 화천 수상리와 상서면, 재천 덕산면, 암실 강진면, 화산 이양면 구례읍, 영암 청기면, 광양시, 순천 신성면, 덕천 풍덕면, 명산 지역면, 초산 남면, 철산 운산면, 고원 사곡면, 정령 고산면, 북청 거산면, 무산읍 무산 초령면, 회양 내금강면 등 전국에 수백을 헤아리는 절골이 있다.



이형석 (한국어학회 부회장)

또 광명시의 노은사리(老隱寺里)를 비롯 사리(寺里), 식사리(食寺里), 양사리(兩寺里), 사곡리(寺谷里), 사문리(寺門里), 사내리(寺內里), 송사리(松寺里), 사분리(寺盆里) 등 '사(寺)'자가 든 마을 이름에서 그것이 불교에서 나온 지명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런 마을이름들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불(佛)'자가 들어간 땅이름은 전방 영광군 불

도 곳곳에서 보인다.

중원군 상모면에 마루리와 마루사지가 있고 고개 넘어 문경읍에는 관음리가 있어 두 보살 이름을 딴 땅이름이 아주 대하고 있으며 익산군 금마면 마루산 밑에는 마루사지가 있으며 안성 양성면 미산리의 미라네는 불교 땅이름인 '미라니'에서 온 말이다.

무안군 청계면과 동탄면 사이의 송달산은 원래 원명성님이 와서 수도하였다고 하여 불여진 산이었는데 그 앞에 목포의 유달산이 버티고 있어 불교와 유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여준다.

또한 서울의 탑골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볼수있는 탑동, 탑리, 탑촌리, 탑령리, 탑현리, 탑거리 등은 탑이 소재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 절의 시적비, 묘 앞의 신도비, 각종 공덕비가 있는 곳에 비석거리, 비석리, 비각리 등의 이름이 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땅이름은 그 지역의 역사를 말해주는 산증인이기 때문에 값진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유래를 캐다보면 곳곳에서 숨쉬고 있는 불교를 만나게 된다.

10년만에 완성한 無比스님 완역편찬 화엄경 전12권 예약안내

화엄경의 大講主 無比스님이 20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화엄경 전12권, 11월 초 출간을 앞두고 예약을 받습니다.

마침내 완성한 우리시대의 최신 한글 화엄경! 경전중의 경전, 신앙의 법보, 부처님의 법음,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화엄경은 이런 경전입니다.

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은 부처님의 大覺을 바탕으로 불도의 실천이란 무엇이며 지혜와 자비란 무엇인가라는 보살도(菩薩道)의 궁극적인 진리를 설하고 있는 신앙의 法寶입니다. 불교의 우주관과 인생관을 집대성한 화엄경은 한송이 작은 꽃에서도 법계의 무진함을 들을 수 있는 부처님의 法音이 담겨 있습니다.

無比스님 완역 편찬, 민족사판 화엄경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30여년 동안 화엄경을 깊이 공부해 오신 無比스님이 10여년의 심혈을 기울여 마침내 완성한 우리시대의 최신 한글 화엄경입니다.

둘째, 화엄경 전40품의 완역입니다.(보현행원품까지 포함됨)

셋째, 난해한 원전을 유려한 한글로 옮겨서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에 좋습니다.

넷째, 화명(11.5p 조판)으로 미려하게 조판 편집되었으며, 영구보존판 양장으로 제본하였습니다.

다섯째, 80권본 화엄경의 원문을 수록하여 참조의 편리를 기렸습니다.

여섯째, 단순 번역이나 편찬이 아니라 치밀한 내용분석을 통해 단락과 제목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일곱째,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화엄경의 주요 어휘들을 알기 쉽게 풀이한 華嚴經 小辭典을 별권으로 간행하였습니다.

여덟째, 화엄경의 대중적인 보급을 위한 저렴한 가격입니다.

화엄경은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원천이며 사상의 精華요, 위없는 法寶입니다.

화엄경은 인류 최고의 정신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의 자부심이며 화엄경을 모시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불자라면 누구나 최고의 경전 화엄경을 수지독송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부처며 부처의 세계는 화엄이다.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부처다. 이 부처의 세계는 화엄이다.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사물과 사람들도 모두가 부처다. 선도 악도 그들도 모두가 부처다. 행복도 불행도 극락도 지옥도 모두가 부처뿐이다.

예약안내

1. 예약특가: 전12권 100,000원 일시불(출간후 정가는 130,000원입니다.)
2. 예약기간: 1994년 10월 30일까지(11월 초 완간)
3. 예약방법: 본사 주소나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4. 송금방법: 아래의 온라인, 대체구과, 소액환을 이용하십시오.

(조흥은행)390-01-033705 민족사 (제일은행)130-10-080370 윤재승 (농협)032-01-088461 윤재승 (외환은행)059-18-17838-6 윤재승 (우체국)010041-0097045 윤재승 (국민은행)023-01-0225-854 민족사 (신협은행)15504-0475103 윤재승 (상업은행)113-04-101987 민족사 (우편대체)010041-31-1200054 윤재승

예약특전

1. 본 화엄경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11월 출간 즉시 원하시는 곳까지 소포로 보내 드립니다.
2.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華嚴經小辭典》1권과 《화엄변상도》를 증정합니다.
3. 예약하신 분에게는 저희 민족사 도서 전품목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도서할인권을 증정합니다.(유효기간 6개월)

*** 화엄경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각 지역 특판하신 분을 초대합니다.**

도서출판 우편번호 110-130
민족사 서울 종로구 청전동 208-1
전화: (02)732-2403-4, 722-7679 팩스 (02)739-7565

예약안내